

■ 주요 뉴스: 미국 금주 일부 국가의 관세 결정할 방침 성실 협상 국가도 상호관세 부과 가능

- 미국 재무장관, 장기채 발행 확대는 불필요, 상원은 감세법안 표결 절차 돌입
- EU, 미국의 상호관세 수용 예상.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은 관세 인하 주장할 전망
- 중국 6월 제조업 PMI, 3개월 연속 확장의 기준 50 하회. 무역 불확실성을 반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관세 우려 완화, 금리인하 기대 등이 영향

주가 상승[+0.5%], 달러화 약세[-0.5%], 금리 하락[-5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무역협상 낙관론 및 빅테크 강세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건설 및 풍력 관련주 약세 등으로 0.4%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재정 우려 등으로 하락. 달러화는 유로화 대비 약 4년래 최저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6%, 0.4%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등이 반영
독일은 ECB의 금리인하 전망 약화 등으로 2bp 상승

※ 뉴욕 1M NDF 증가 1350.1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52.8원, 0.2% 상승). 한국 CDS 약보합

		6/30일	6/27일	전일대비			6/30일	6/27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205.0	6,173.1	+0.52%	국채 금리 10y	미국	4.23%	4.28%	-5bp
	유럽	541.37	543.63	-0.42%		독일	2.61%	2.59%	+2bp
	중국	3,444.4	3,424.2	+0.59%		영국	4.49%	4.50%	-1bp
	일본	40,487	40,151	+0.84%	CDS 5y	한국	26bp	26bp	-0bp
	한국	3,071.7	3,055.9	+0.52%		중국	51bp	51bp	-0bp
환율	달러지수	96.88	97.40	-0.54%	위험 지표	EMBI+	-	371	-
	유로화	1.1787	1.1718	+0.59%		VIX	16.73	16.32	+2.51%
	엔화	144.03	144.65	+0.43%		WTI유	65.11	65.52	-0.63%
	위안화	7.1638	7.1726	+0.12%	원자재	구리	503.0	506.9	-0.76%
	원화	1,350.0	1,357.4	+0.55%		금	3,303.1	3,274.3	+0.88%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금주 일부 국가의 관세 결정할 방침. 성실 협상 국가도 상호관세 부과 가능

-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번 주 상당수 국가에 대한 관세율을 결정할 예정. 또한 교역국들이 선의로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이들 국가 중 상당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
-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일본이 쌀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도 미국에서 쌀을 수입하려 하지 않는다면 불만을 피력. 또한 일본과의 무역협상이 지지부진하다면서 무역 관련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부연
- 아울러 연준 파월 의장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재차 비판. 특히 파월 의장과 여타의 연준 인사들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한다면 미국은 매년 수조 달러 규모의 이자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 베센트 재무장관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는 국가의 경우에도, 그들이 일정 부분 저항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4/2일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언급. 이는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하면 해당 국가에 유예되었던 높은 수준의 상호관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음을 시사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재무장관, 장기채 발행 확대는 불필요. 상원은 감세법안 표결 절차 돌입

- 베센트 재무장관은 지금과 같은 금리 수준에서는 장기채 발행 확대가 옳지 않다고 발언. 아울러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떨어지고, 이에 국채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는 점차 낮아질 것으로 기대
- 한편 상원은 감세법안의 표결 절차를 시작. 이는 정식 표결에 앞서 의원들이 무제한의 수정안을 제출하여 표결에 부치는 절차로, 소수당이 다수당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 전문가들은 이번 투표에서 최대 12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캐나다, 디지털세 부과 계획 철회. 미국과 21일까지의 무역합의 위해 노력

- 캐나다는 디지털세 시행 하루를 앞두고 이를 철회. 정부 대변인은 미국과 21일까지 무역합의를 달성한다는 원칙으로 협상을 재개한다고 발표

■ 연준 주요 인사, 연내 1회 금리인하 예상. 스태그플레이션 현실화 가능성 낮은 편

- 애틀랜타 연은의 보스틱 총재는 연내 1회의 금리인하를 예상하고, 고용 여건이 양호하다고 부연. 또한 관세의 인플레이션 영향이 아직 현실에 반영되지는 않고 있다고 진단. 한편, 시카고 연은의 굴스비 총재는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징후는 없다고 평가. 다만 향후 경제 여건은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

■ EU, 미국의 상호관세 수용 예상.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은 관세 인하 주장할 전망

- 블룸버그에 따르면, EU는 대체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의 상호관세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 다만 자동차(25%), 철강 및 알루미늄(50%), 의약품, 주류, 반도체, 항공기 등 일부 부문의 경우 관세 인하를 주장할 것으로 관측.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미국 측이 반대하고 있는 디지털 규제를 유지한다는 방침

■ ECB 총재, 인플레이션 변동성 확대를 예상. 독일 6월 소비자물가는 상승세 둔화

- 라가르드 총재는 경제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이에 인플레이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 권도스 부총재는 2/4분기 역대 성장률이 거의 정체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 한편 ECB는 5개년 통화정책전략을 공개. 이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서 어느 방향이든 괴리가 발생하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
- 한편 독일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2% 올라 전월(2.1%) 대비 상승세 둔화. 시장에서는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ECB의 목표(연율 2%)에 이르고, 금리인하는 9월을 마지막으로 종료될 것으로 전망(Capital Economics)

■ 중국 6월 제조업 PMI, 3개월 연속 확장의 기준 50 하회. 무역 불확실성을 반영

- 국가통계국의 6월 제조업 PMI는 전월비 상승(49.5→49.7)했으나, 확장의 기준 50을 하회. 이는 경기 회복의 기대 심리가 여전히 부진함을 의미. 무역 불확실성에 따른 국내수주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 한편, 비제조업 PMI와 종합 PMI는 모두 전월비 상승(각각 50.3→50.5, 50.4→50.7)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7/1일 현지시각 기준)

- 연준 파월 의장·ECB 라가르드 총재 발언, 미국 6월 ISM 제조업 PMI
- 미국 5월 JOLTs 구인건수, 유로존 6월 소비자물가, 중국 6월 차이신 제조업 PMI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금융시장, 급변하는 세계 및 트럼프 정책에도 안정세 유지 - Financial Times

(The world is changing, the US market is not)

- 주가와 채권 가격은 지정학적 충격, 관세정책 불확실성, 재정 우려 등에도 상승. 여타 주요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저조하지만 상승세는 유지. 이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예상과 달리 물가 상승이나 경기 둔화로 크게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 기업 실적에도 큰 타격은 없으며, AI 낙관론 등은 시장 견인에 일조
- 이러한 낙관론이 훼손될 수 있는 다음의 세 가지 시나리오가 제기. ① AI 붐의 위축 ② 관세가 인플레이션·성장 둔화를 초래 ③ 투자자들이 양호한 소비 및 기업이익이 재정 적자 확대의 결과라고 인식. 3개의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가 현실화되기 이전까지 낙관론이 지속될 전망. 다만 트럼프는 이를 정책 효과를 과신할 근거로 거론할 소지

■ 미국 트럼프 2.0의 무역협상, 관세 집중 편향 등 3가지 특징이 내재 - 블룸버그

(The Three Traits of Trade Deal-Making in Trump's Second Term)

- 미국의 관세 유예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무역협상 체결은 영국과의 소규모 합의 및 중국과의 휴전 협정이 전부. 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트럼프 협상에서의 세 가지 특징 유추가 가능. 첫째, 무역 협정보다 관세 협정에 가까울 소지. 10% 보편관세의 확고한 기준은 이를 방증
- 둘째, 모든 거래가 일시적이고 취약할 가능성. 트럼프 1.0 당시 의회에 상정되지 않은 중국과의 무역 협정이 1년 만에 폐지. 셋째, 규칙도 심판도 없는 협정이 예상. 이는 상호 경계선과 분쟁 해결 도구가 없는 '거래 조건서(term sheet)'에 불과

■ 미국 트럼프와 연준, 관세의 인플레이션 영향 관련 대립 본격화될 전망 - 블룸버그

(Fed Versus Trump on Tariffs Impact Will Soon Be Put to Test)

- 연준이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로 금리인하를 유보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파월 의장에 금리인하 압박을 강화. 최근 연준의 월러 및 보우먼 이사가 공개적으로 파월과 다른 입장을 보이며 7월 금리인하가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 다만 시장에서는 7월 인하 가능성을 약 20%로 보며 9월 인하를 예상
- 현재 연준은 딜레마에 직면. 물가상승 압력이 본격화되기 직전에 금리를 인하하면 이후에 더 강한 긴축이 필요해질 수 있기 때문. 반면 실현되지 않는 인플레이션으로 고금리를 유지하면 경기 둔화 및 고용 위축을 초래할 소지. 이에 향후 발표되는 6월 고용보고서 및 소비자물가가 연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로 작용할 전망

- **유럽의 對美 관세 협상력, 국가별 상이한 미국 의존 성향 등이 저해 요인 - 블룸버그**
(Tariff Bullying Is Working Too Well in Europe)
 - 미국의 관세 위협에 대한 유로존 대응은 역내 27개 회원국의 비대칭적 합의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 독일은 관세 전쟁보다 국가 재건에 집중하는 반면, 이탈리아는 트럼프와의 관계 유지를 강조. 우크라이나 인근 동구권 국가들은 미국의 안보 지원이 주된 관심사이나 프랑스는 자국 산업 보호 조치 확보에 집중
 - 이처럼 안보부터 기술까지 국가별로 상이한 미국 의존도는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 이는 對美 보복 무역에 나설 때에도 강력하게 협력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노출
- **미국 달러화 상반기 하락률, 무역정책부채문제 등으로 1973년 이후 최대 - Financial Times**
(US dollar suffers worst start to year since 1973)
- **연준 독립성의 훼손, 물가와 재정 우려 현실화 시 관련 피해 증폭시킬 우려 - 블룸버그**
(The Independent Federal Reserve Is on Death Row)
- **미국 트럼프, 강력한 실행력을 통해 자국 중심의 세계질서 재편 추구 - WSJ**
(Trump Seeks to Remake the World)
- **중국의 가격인하 경쟁, 시진핑 정책이 원인이며 수요 확대 대응이 요구 - Financial Times**
(Xi Jinping's futile war on price wars)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